PA-61

전북 주요 벼 품종 이앙시기 및 재식밀도가 생육 및 수량성에 미치는 영향

김효진[1]*, 강영호[1], 이덕렬[1], 조대호[1], 김주[1]

[1]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,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

[서론]
벼 농사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재배법이 절실한 실정이다. 드문모 재배는 관행농법 대비 모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배법으로 육묘 및 이앙노력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대면적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. 그러나 품질 저하 및 수량 감소의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벼 드문 모심기가 품종별 이앙 시기에 따른 생육 및 수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본 시험은 2020년 전북농업기술원의 현지 시험포장(익산)에서 수행하였다. 품종은 수중형인 신동진(330g/모판) 및 수수형인 십리향(300g/모판)의 어린모를 사용하였다. 이앙은 5월 20일, 6월 5일, 6월 20일에 각 재식밀도 37, 50, 60, 80주/3.3㎡로 4~5본씩 기계 이앙을 실시하였다.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벼 표준재배법을 따랐으며 이앙일 및 재식밀도별 품종에 따른 생육, 수량구성요소 및 쌀수량 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수량구성요소를 보면 5월 20일 이앙에서 재식밀도별(37, 50, 60, 80주/3.3㎡) 수확기의 주당 수수는 신동진이 각각 18~24개, 십리향은 19~31개 였으며, 평균 등숙비율은 신동진은 90.4.~94.5%, 십리향은 88.6~91.8%로 나타났다. 6월 5일 이앙에서 주당수수는 신동진이 각각 15~21개, 십리향은 18~30개 였으며 평균 등숙비율은 신동진은 88.7~94.0%, 십리향은 85.2~90.6%로 나타났다. 6월 20일 이앙에서 주당수수는 신동진이 각각 13~21개, 십리향은 16~28개 였으며 평균 등숙비율은 신동진은 81.9~85.7%, 십리향은 74.2~77.8%로 나타났다. 신동진, 십리향 모두 5월 20일 이앙 재식밀도 80주/3.3m^2 에서 수확량이 가장 많았다. 본 시험은 소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드문모심기에 따른 재배 안정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한 연차간 생육 및 수량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.

[사사]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(사업번호:PJ014886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Corresponding author: E-mail. khj0819@korea.kr Tel. +82-63-290-6072